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인터뷰 1]

누리과정 예산 야당 단독처리 때문에 추경 처리 무산? 새누리당 행태는 적반하장

-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국민의당)

-누리과정 야당 단독처리 내용, 교육부장관도 반대 의사표시 없었어

-누리과정 예산 처리 최후 순간까지 여당 설득했어, 깎아줄 수 있다고 의견 제시했으나 여당이 회의 참석 안 해

-손학규 국민의당행 고집하는 게 맞는 태도냐, 깊게 생각해봐야

-새누리-더민주 전대 결과, 국민의당 외연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더민주, 호남 없이 정권 교체 가능하다는 인식은 정권교체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

누리과정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추경안 처리가 어제 또 다시 무

산되었습니다.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름이 좀 길죠? 줄여서 교문위라고도 하는데요. 교문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유성엽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어제 고생하셨겠습니다.

유성엽 : 뭐 그러지는 않았습시다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김만흠 : 네. 추경안 처리 어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누리과정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여당이 문제제기를 한 건데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보십니까?

유성엽 :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새누리당 태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서 넘겼으니까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해가면 될 일인데 그것을 이유로 예산처리를 보이콧하는 것은 참으로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김만흠 : 네. 상임위 자체의 의결 절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관행을 보면 여야 간의 합의라든가 협상 같은 게 있을 것인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요?

유성엽 : 사실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원래 끝까지 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속된 말로 좀 깎아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고, 또 예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싫다면 부대 의견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회의장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논의해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끝내 회의 참석을 거절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런 상황이고 또 사실 그 다음 날은 예산을 처리하기로 된 날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을 본회의에서. 우리 교문위로서는 좀 상황이었지만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이번에 교문위에서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증액 관련된 부분이 라든가 비목해가지고 이것은 헌법에서도 행정부가 할 일이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유성엽 : 증액이나 신설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정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김만흠 : 아, 정부의 동의를 됐습니까?

유성엽 : 그건 나중에 교육부 장관 인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을 의결하고 나서 교육부 장관 인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는 없었습니다.

김만흠 : 그러니까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정부쪽에서 참여를 했군요? 논의과정에서?

유성엽 : 그럼요. 당연히 거기에 참석해 계시는 거고, 정부 장관들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또 예산 의결이 되고 나면 정부 측 인사가 있거든요. 문체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그런데 교육부 장관께서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만흠 : 그러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법의 근거를 넘어선 반칙을 했다, 라는 주장은 지금 동의할 수 없겠군요?

유성엽 : 법을 넘어선 반칙이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김만흠 :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유성엽 교문위원장 윤리제소도 거론하던데...

유성엽 : 상을 쥐야 할 일이지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갖다가 제소한다, 라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고 적반하장이죠. 그 어려운 문제를 무릅쓰고 해결한 거 아닙니까. 일단 상임위 차원이지만.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해냈다, 해서 칭찬은 못 해줄망정 그걸 윤리제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김만흠 : 네. 상임위 내부에서 의결 절차가 있지만 대체로 여야 간에 협상, 타협, 합의 이런 것을 제가 관행으로 이야기했었는데... 19대에서는 어땠습니까?

유성엽 : 미루어 짐작하시는 대로 그 당시 18대, 19대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여당의 뜻대로 움직여왔죠. 그동안.

김만흠 : 그러면 현재는 여소야대가 되겠는데 당시 여대야소일 때 비추어서 지금 여소야대에서 야당은 타협적이고 협상을 좀 많이 하는 쪽입니까?

유성엽 : 이번 지금 누리과정 부분만 해도요. 사실은 열흘 전, 8월 19일 날 야당만 단독으로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예산결산소위에서 세 차례나 여야 간에 논의를 해왔던 사안이고 8월 19일 날도 사실은 우리 교문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새누리당이 끝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야당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했던 일인데 그걸 미루어 둔 겁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그런데 어제, 그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회의장에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지금 여소야대라고는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1당 아닙니까. 무소속 복당이 이루어져서.

김만흠 : 그래도 야당 합하면 야당이 수적으로 많죠?

유성엽 :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 1당은 새누리당이에요. 의젓하고 어른스럽게 해야죠. 새누리당에서.

김만흠 : 네. 추경안이 형식상으로 보자면 정기국회 기간 내에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까지는, 임시국회 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성엽 : 저도 한다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회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선 산업, 해양구조조정 문제로 얼마나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또 보육대란 문제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 학부모들 정말 걱정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우리 국회에서 해결하고 또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어서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만흠 : 오늘 매듭짓는데 결정적인 고리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느 안건, 어느

사안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성엽 : 글썄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크고 작은 이견들이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역시 현재 교문위 소관인 누리과정 예산문제, 그거 가지고 제일 쟁점이 되지 않겠는가...

김만흠 : 여당에서 천억 정도 깎고 하자, 라는 제안도 있었다면서요?

유성엽 : 이게 보면요. 지금 세제잉여금이 2조 5천억이 발생했어요. 지금 금년도 추경을 위해서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1조 3천억 정도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세제잉여금 처리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1조 2천억은 어디에다 써도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추경 재원으로.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국채 상환에 쓰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국채만 빛이나, 지방교육채는 빛 아니냐,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빛이 3조원에서 14조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교육채도 누리과정 때문에 급증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교육채도 상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온당한 처사입니다.

김만흠 : 그러니까 당장 이번에 추경안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시각의 차이도 있겠군요?

유성엽 :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분권, 지방 재정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도 읽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이번에 추경안 서로 여야 간에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누리과정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 부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반영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었죠?

유성엽 :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아마 본예산이 이제 윤곽이 드러났는데 전혀 해결책이 거기 반영되어 있지 않던데요? 여전히 그냥 아직 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특별회계 속에다가 하는데 별도의 새로운 재원으로 한다면 모를까, 기왕에 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육세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특별하게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쓰겠다, 라는 건데... 정기 국회에서 이번 추경에서 그냥 정부가 하자는 대로 넘어가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그러면 오늘 마지막 재협상 과정 속에서 이 문제도 조금 연계해서 협의가 되겠군요?

유성엽 :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아마 감안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문위에서 의결한 것이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6천억에서 더 삭감하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당초 원칙대로 하면 1조 8천 억원을 증액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앙정부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끼 서로 어려움들을 분담해서 가자는 차원에서 6천억 정도로 최소한으로 증액 의결을 했는데 또 그 부분을 조정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김만흠 :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이른바 친문 일색이라는 평가가 있던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국민의당은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같은 야당이기도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대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유성엽 : 뭐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전당대회가 치러지기 전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들 예견들을 많이 했고,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외연 확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들 예견했는데 역시 뭐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좀 더 크게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다른 당의 이야기이지만 걱정도 좀 됩

니다.

김만흠 : 그래도 정권교체의 희망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라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 일원들은 제가 질문하면 그렇게 답하시면서 국민의당은 기껏해야 호남 당밖에 안 된다, 호남당 가지고는 정권교체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유성엽 : 설사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호남당 가지고 정권교체 못한다는 거 맞는데 호남 없이 정권교체 할 수 있다, 라는 것인지 어떤 말인지 좀 불분명하네요. 그게, 뭐 호남 없이 그냥 정권교체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김만흠 : 문재인 전 대표는 과거처럼 90%의 지지는 못 받을지라도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안정적이다, 그래서 남은 과제는 PK지역에서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는가, 하는 게 정권교체의 키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성엽 :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판단됩니다. 너무 호남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반발하는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정권교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호남 없이도 가능하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권교체 의지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김만흠 : 네. 최근에 주요 정당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해서 그런 건지 제 3지대론이 상당히 부상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제 3지대의 한 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유성엽 : 저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전대 결과나 지난번 새누리당의 전대 결과를 봤을 때 꼭 제 3지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당한테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나가느냐, 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국민의당한테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여건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긴장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만흠 : 어쨌든 간에 이번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대 결과를 보고는 국민의당이 외연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유성엽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제대로 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여이 우리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서로 국민의당 입장에서 내가 한다, 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나가면 외연확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여러 가지 외연 확장의 대상이라든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주목받을 만한 인사가 국민의당에 합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 중에 손학규 전 고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최근에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막걸리 회동을 두 시간 반이나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까?

유성엽 :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반적 예상으로 국민의당에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당으로서도 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꼭 국민의당만 고집하는 게 맞는데도, 이 문제도 한 번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김만흠 :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랬던가요? 지난번에 마치 설전처럼 보도가 되었었는데 박지원 대표하고 황주홍 의원 간에 제 3지대론, 확실히 개방하고 제 3지대를 하자는 쪽과 국민의당이 점점 중심을 잡아가면서 서서히 3지대를 이끌자는 이런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을 반영한 이야기인가요?

유성엽 : 글썄요. 그런 것을 꼭 반영했다, 라기 보다 그런 문제들과 관련이 될 수도 있는 논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만흠 : 유 의원께서는 어느 쪽 입장이신가요?

유성엽 : 글썄요. 저는 어떻게든 정권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체제, 힘을 갖는 방향으로 제 3의 힘을 모아가야 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한 방식이라면 저는 그걸 지지하겠습니다.

김만흠 : 네. 지금 확실하게 어느 쪽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라는 건 확실하게 판단한 건 아니고요?

유성엽 : 그렇습니다.

김만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국회 교문위원장 맡고 있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